

현대복식에 나타난 Asian Ethnic Fashion에 대한 연구

—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

상주산업대학교 의상디자인과

시간강사 권기영

경북대학교 의생활학과

전임강사 유영선

目 次

I. 서론	V. 결론
II. Asian Ethnic Fashion의 등장배경	참고문헌
III. 동남아시아 지역의 복식형태와 특징	ABSTRACT
IV. 현대패션에 나타난 Asian Ethnic Fashion	

I. 서론

금세기에 이룩한 기술의 혁신은 세계를 지구촌이라는 단일 공동체로 만들고 있다. 서구에서 출발한 산업화는 이제 서구 뿐만 아니라 현대화를 지향하고 있는 제3세계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생활양식을 유포시키며 문화적 차이를 사라져 가게 하고 있다.¹⁾ 복식에 있어서도 저개발 국가나 미개원주민들은 아직 그들의 원시적인 복장형식을 지키고 있지만 대부분의 문명화된 개발국들은 서구의 패션을 따르고 있다. 이처럼 서양복식의 조형성이 세계의 패션계를 지배하면서 동양의 민속복식들은 특별한 의례행사복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하지만 현대 산업사회의 동질화, 대량생산에 의한 획일화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탈획일화 현상과 함께 세계 패션계는 다른 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인류학적인 각 민족 특유의 민속복식양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반대로 각 민족은 그들의 전통적인 복식양식을 구미 패션에 도입, 응용하여 새로운 패션 제안과 아울러 전통의상을 계승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²⁾ 이러한 복식에 나타난 민속복식은 에스닉 패션(Ethnic Fashion)으로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원화, 절충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수민족의 복식양식을 현대풍에 재현시킴으로서 하나의 절충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³⁾

‘에스닉(Ethnic)’은 토속적이고 비교적 원형이 간직된 상태의 비기독교적인 민속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가 중동의 의상, 잉카의 기하학적인 문양, 인도네시아의 바틱(Batik), 인도의 의상 등이다. 에스닉 패션은 바로 이러한 소수민족의 전통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민속의상,

1) 독특한 문화유산을 통한 문화디자인 개발, 월간 마켓팅 (1994. 2), p.102.

2) 김민자, “한국 패션의 고유디자인에 대한 발전적 모색”, 산업디자인, 110 (1990, 6), p.21.

3) 정연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민속풍(Ethnic look)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4호 (1993), p.216.

염색기법, 직물, 자수 등을 이용한 소박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이다.

에스닉이 패션으로 처음 소개된 것은 1989년 세계적인 직물전시회 중 하나인 프레미에르 비죤(Premiere Vision)⁴⁾에서 예고한 직물유행 경향의 한 테마로 등장한 것으로 1990년 이후 본격적인 유행테마가 되고 있다. 특히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아시아 지역의 민속복식은 에스닉 패션이 등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데 1993년에 들어서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민속복식이 패션에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에스닉 패션의 한 흐름으로 나타난 아시아 에스닉 패션(Asian Ethnic Fashion)을 연구하므로써 동남아시아 지역의 민속복식이 서양패션에 접근된 방식과 표현방법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패션 디자인 창출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로 이루어지며, 먼저 에스닉 패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고찰하고 동남아시아 지역 민속복식을 설명할 수 있는 문헌과 사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각 국가의 민속복식 형태를 파악한다. 조사대상국가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에스닉 패션에 영향을 주고있는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5개 국가로 한다. 이를 토대로 에스닉 패션이 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의 동남아시아 민속복식에 영향을 받은 에스닉 패션 사진을 FASHION NEWS, FASHION SHOW, FASHION LINE, COLLEZIONI, 流行通信, COLLECTIONS 등의 패션잡지에서 추출 분석한다.

II. Asian Ethnic Fashion의 등장배경

에스닉 패션은 1989년 프레미에르 비죤에서 본

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 뿌리를 두고있다.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적인 이미지의 패션을 뜻하는데, 이는 동양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동양의 영향은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⁵⁾

역사적으로 볼 때 서양복식의 동양풍의 흔적은 고대 비잔틴(Byzantine) 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은 동서양의 접촉점으로서 양쪽의 문물 교류가 성행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으로 비잔틴 시대의 복식은 금사, 은사의 호화로운 장식이나 보석, 금, 은의 장식품을 이용한 동양풍 의상이 유행하게 되었다.

중세 말 십자군 전쟁(1096~1291)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슬람교도들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시작된 전쟁으로서 이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서양과 동양의 본격적인 접촉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동양의 수준 높은 이슬람 문화가 서양에 수입되었으며 동양의 견직물, 면직물과 진보된 직조기술이 수입되었다. 이러한 동서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중세복식에 나타난 동양의 영향을 보면 앞트임 의복의 도입으로 인한 단추장식과 염료의 수입에 의한 파티 칼라(Parti color)의 유행, 그리고 의복의 가장자리 장식과 다양한 직물의 사용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자수와 애플리케(Applique)의 발달이었다.⁶⁾

그 외에 바로크(Baroque) 시대에 나타난 중국식 가운이나 인도 복식의 장식, 로코코(Rococo) 시대의 동양적 형태의 가운, 중국 스타일의 땀은 머리형태 등은 서양에서 동양의 풍물과 정서를 동경하는 것에서 비롯⁷⁾ 것들이다. 그래서 18C경에는 시느와즈리(Chinoiserie : 중국취미)와 튀르크리(Turquerie : 터키취미)가 유행하였고 페르시아, 인도, 중국에서 수입해 온 직물은 당시의 복식

4) 월간 멋, 동아일보사, 서울, 1992, 3, 169.

5) KOREA TEXTILE, 季刊 한국텍스타일, 동권 제2호(1993년 여름호).

6) 白英子 柳孝順, 서양복식 문화사(서울:경춘사, 1989), p.204.

7) "Oriental Look", 패션 투데이, No. 45, (주) 패션정보사(1994. 1)

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아시아의 민속복식이 현대패션에 접목되기는 20세기 최고의 디자이너인 폴 포와레(Paul Poiret)가 1904년 기모노 소매의 코트와 “아라비안 나이트(The Arabian Night)”를 재현시킨 듯한 터번(Turban)과 하렘팬츠(Harem Pants)를 선보여 오리엔탈 무드를 발표⁸⁾하면서이다. Paul Poiret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모로코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직물 문양에 대한 영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터번, 판타롱, 디바이디드 스커트 등을 여성복에 도입하였다. 그는 호블 스타일(Hobble Style), 미나렛 스타일(Minaret Style), 하렘 스타일(Harem Style)을 발표했는데 호블 스타일은 아래로 갈수록 스커트 폭이 좁아지는 스타일이며, 미나렛 스타일은 하이 웨이스트에 넓은 새쉬 벨트(sash belt)를 맨 것으로서, 이것은 일본 취향인 기모노의 요소에서 도입한 것이다.⁹⁾ 미나렛 스타일에는 동양풍의 터번을 함께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었다.¹⁰⁾ 그리고 하렘 스타일은 터어키의 사르단 궁정의 민속의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폴 포와레는 1911년 페르시아인 축제인 '1002의 밤'을 개최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실루엣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폴 포와레의 동양풍 패션은 1930년대까지 계속적으로 대중에게 유행되었다.

1911년 파리에서 있던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에서 ‘화조’, ‘봄의 제전’, ‘페젤스카’ 등에서 보여준 동양풍의 모드는 원래 동양풍에 흥미가 많은 파리의 디자이너들을 흥분시켰다. 이는 아르누보(Art Nouveau)에 이어 아르데코(Art Deco)에 큰 영향을 주어 아르데코 양식에도 동양풍이 가미¹¹⁾되었

는데, 아르데코가 취하고 있는 원색은 폴 포와레의 원색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야수파, 러시아 발레단의 화려한 극채색, 당시 사회저변에 깔려있던 동양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도 아르데코의 원색과 어우러진다. 이러한 원색의 유행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1931년 파리에서 개최된 식민지 박람회였다. 그 후 태평양이나 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의 이국적인 민속조의 색채가 계속해서 나타났다.¹²⁾ 50년대는 과거에로의 향수라는 북고스타일이 특징을 이루었는데, 이는 80년대로 향하면서 점차 강해졌으며 당시 여성들의 원피스 수영복의 재동장과 함께 나타난 이국적인 프린트와 사롱(Sarong)은 동남아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¹³⁾ 70년대 초반에 발발한 베트남 전쟁은 세계인의 관심을 그 지역으로 끌었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강한 반전운동을 일으켰다. 하지만 반전감정과 정반대로 군복같은 의상이 매우 상업적인 젊은 층의 패션패드가 되었으며, 월남치마가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중공의 무역 재개와 월남전 종결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 진출이라는 세계정세의 변화는 패션계에도 영향을 주어 75년 봄 파리 컬렉션에서는 쟌조(Kenzo)가 발표한 중국풍의 마오아라모드(Mao À la mode)가 이국적인 모드로 패션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서 75년 가을·겨울 파리 컬렉션에서는 이브생로랑(Yves Saint Laurent)에 의해 러시아풍이 선보였고, 78년 가을·겨울에는 다시 쟌조에 의해 네투룩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동양풍의 패션은 1960년대 말에서 70년

8) 장순찬, “Art Nouveau Fashion”, 이대석사학위논문, 1984, p.100.

9) 주명희, “야수주의(Fauvism)의 영향을 받은 현대의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49.

10) 崔景順, 崔英玉, 李正玉, 西洋服飾史 (서울:螢雪出版社, 1990), p.338.

11) 조규화, “아트 데코 패션 -1920년대의 파리를 중심으로-”, 造形論叢, 第2輯(國民大學校 환경디자인 研究所, 1982), p.257.

12) 조규화 박혜원, “아르데코 패션의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15, No. 4 (1991), p.387

13) 정현숙 역, 20세기 패션 (서울: 경춘사, 1992), p.276.

대 초엽에 나타난 히피모드(Hippie Mode)에서도 보여지는데, 당시의 히피들은 서구문명에 대한 반발로 동양의 사상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에스닉풍의 프린트, 동양풍의 구슬 목걸이, 반지 등의 악세서리와 자연스런 화장 등으로 그들의 이상을 표출시켰다. 이와 같이 에스닉 패션은 모든 국가로부터 왔으며 극동의 장삼, 말레이시아의 사롱, 일본의 자수품과 민속의상 전시회는 서양의 국제 저널리스트들을 놀라게 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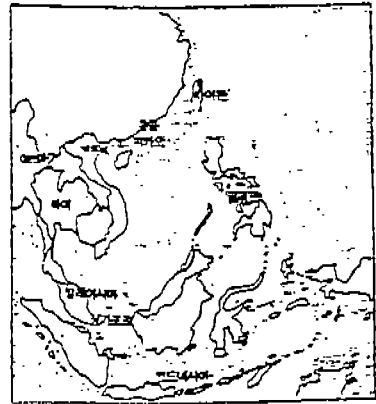
그리고 80년대에는 인도풍, 일본풍의 패션이 유럽에서 나타나 오리엔탈리즘을 부각시켰고 패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이 받아들여짐으로서 과거시대의 모드를 현대에 도입하거나 동서양의 상호절충적 요소가 조화된 의상이 발표되었다. 1987년 마지막 황제 영화의 상영분과 더불어 중국풍이 패션에 나타나기도 하고, 1989년의 아랍전쟁은 패션계를 서남아시아쪽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1989년까지의 에스닉 패션은 주로 중국, 일본, 인도 또는 서남아시아의 민속의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았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개발도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곳의 민속의상에서 영감을 얻은 에스닉 패션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서 영향을 받은 사롱이나 바틱 문양 그리고 베트남의 아오자이(Aosai)풍이 현대패션에서 유행의 한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이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민속의상에서 영향을 받은 패션이 강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 ‘킬링필드(Killing field)’, ‘인도차이나(Indochina)’, ‘연인(戀人)’이 전세계에서 상영되고, 그 지역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이 경제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등 사회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이 세계에

서 중요한 위치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Ⅲ. 동남아시아 지역의 민속복식

1. 지리문화적 배경



〈그림 1〉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아시아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 및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¹⁵⁾ 버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가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은 여름에 다량의 비가 내리는 따뜻한 열대기후를 나타낸다.

한편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와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문화권의 중간에 위치한 관계로 이들 두 지역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으며 서구와 중국 교역의 중간 항로로서 무역업이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동남아시아는 인도와 중국 및 아라비아와 서구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문화의 유입으로 종교적, 인종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복합사회를 이루고 있다.

종교적으로는 자연신과 조상신을 숭배하던 동남아시아에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가 전래됨으로

14) 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A HISTORY OF FASHION (London:Orbis, 1922), p.278.

15) 정승일 · 박태화 · 임영대 공저, ASIA (서울 : 교학연구사, 1994), p.138.

서 이 두 종교가 초기의 동남아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와 모든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버어마, 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주민은 인도에서 전래된 소승불교를 신앙하고, 반면에 베트남은 중국에서 유교, 대승불교, 도교, 한자가 전래되어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복식에서도 많은 부분이 중국과 인도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들 나름대로 전통적인 것과 조화시킨 복식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는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음악과 무용이 특히 중요하게 간주되는데, 이 때 무희들이 입는 민속의상은 외국인들에게 강한 인상과 더불어 디자인어에게는 새로운 패션의 영감을 주기도 한다.

최근의 동남아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 전략적 요충지, 태평양 시대의 협력국, 세계성장의 중심지 등으로 세계 경제 대국들이 크게 관심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최근 구미 선진국들은 새로운 시장개척과 생산비 절감 등의 이점을 안고 있는 동남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2. 각 지역별 민속복식 형태와 특징

전통적인 동남아시아의 의상은 대단히 단순하여 접고(folding), 두르고(wrapping), 늘어뜨리는(draping) 유형으로 구성되며 거의 칼라가 없는 형태이다. 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의상은 사롱이며 소재로는 목면을 주로 사용하는데 열전도율이 높고 땀을 잘 흡수해서 이 지역의 기후에 적합하다.

베트남,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민속의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베트남의 민속의상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아오자이와 쿠완(Quan) 그리고 논(Non)이라는 전통모자로 이루어진다. 아오자이는 차이니즈 칼라가 달려 있는 원피스 형태로 무릎까지 내려오며, 허리에는 다이어트가 들어 있어 몸매가 드러나고 움직이기 편하도록 허리에서 단 끝까지 쿠에하오(Quehao)¹⁶⁾라고 불리는 긴 슬릿을 주었다. <그림 2>의 아오자이는 칼라에서 겨드랑이에 이르는 사선여밌이라는 점에서, 중국의상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여밌은 숨겨진 스냅단추를 주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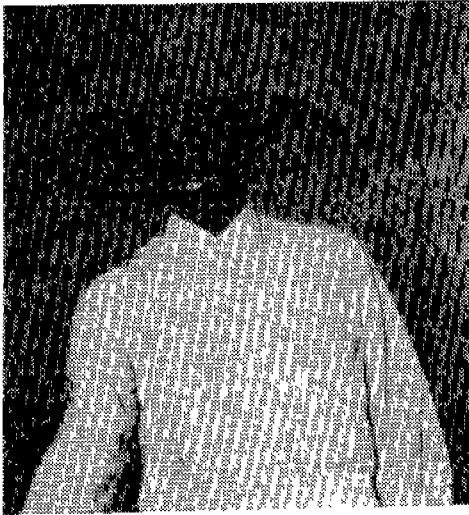
쿠완은 엉덩이가 꼭 끼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통이 넓어지는 형태로 주로 면을 소재로 하여 흡습성과 통기성이 뛰어나며, 허리에는 많은 다이어트가 있어서 치수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림 2> 베트남의 아오자이
(LEFE SOUTHEAST ASIA (마당))

<그림 3>은 베트남의 전통적인 모자로 논이라는 것인데 주로 대나무로 만들어져 실용성과 장식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논은 중국의 물리 햇(Coolie hat)과 형태가 유사하여 중국의 영향으로 보이며,

16) 민속의상 (서울 : 라사라, 1992), p.183.



〈그림 3〉 베트남의 전통모자인 '논'
(GIO 5월호)



〈그림 4〉 태국의 파농과 사바이
(LIFE SOUTHEAST ASIA (마당))

서양패션에서 동양적인 이미지로 자주 사용되어 지고 있다.

2) 태 국

태국 여성의 민속의상은 파농(Pha-ning)과 사바이(Sabai)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의 파농은 한 장의 천을 통형으로 봉제한 것으로, 입을 때는 통 안에 몸을 넣고 몸에 꼭 맞도록 두른 다음 남은 천을 앞 중앙에서 주름을 잡아 벨트로 고정¹⁷⁾하는 형식이다. 사바이는 장방형의 긴 천을 오른쪽 앞 옆술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몸에 한 바퀴 돌린 후 남은 부분을 왼쪽 어깨에 걸쳐서 뒤로 늘어뜨려 왼쪽 어깨에 늘어뜨린 부분을 브로치로 고정한다. 파농과 사바이의 소재는 긴 실크 원단¹⁸⁾에 수를 놓은 것, 오칸디를 이용해 플리츠를 잡은 것, 드레이프를 만든 것이 있지만 원래는 평직 목면을 주로 이용한다.

문양은 다이아몬드, 파상, 지그재그 등이 있고 가로 줄무늬가 많으며, 색상은 천연염료에 의한

짙은 갈색, 연한 갈색, 남색 등을 주로 사용한다. 사바이의 단과 파농의 단에 금사를 짜 넣은 무늬가 있는 것도 있다.

태국남녀가 착용하는 것으로 파춘가벤(Pha-chungaben)이 있는데, 이것은 한장의 천을 기교 있게 감아서 바지의 형태를 만든 것으로 스탠드 칼라가 달려있는 블라우스와 함께 착용한다. 또는 태국에서는 무늬가 큰 화려한 꽃무늬의 사롱도 입지만 이것은 외출복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정복¹⁹⁾으로 주로 착용한다.

태국의 민속의상 역시 인도와 중국적인 요소가 엿보이는데, 파농의 주름잡는 법이나 사바이를 입는 법 등은 인도의 사리(Sari)와 매우 유사하고, 스탠드 칼라가 달린 재킷은 중국적이다.

3) 미얀마

미얀마의 전통 민속의상은 엔지(Eingyi)와 론지(Longyi 또는 Lungyi)로 구성된다. 〈그림 5〉를 보면 웃웃인 엔지는 중국식이며 아래웃인 론지는

17) National Dress for Women-Initiated by H. M. Queen Sirikit (Thailand, 1994), p.31.

18) FACT SHEET ON THAILAND-THAI FASHIONS. THEN AND NOW (Thailand, April 1986), p.1.

19) 小川安郎, 世界民族服飾集成 (東京: 文化 出版局, 1991), p.50.



〈그림 5〉 미얀마의 엔지와 론지
(LIFE SOUTHEAST ASIA (마당))

인도식이고 신발은 일본 조리의 영향을 짐작케 한다.²⁰⁾

론지는 남녀가 모두 착용하는 요권의 하의로서 폭넓은 원단을 세로로 한면만 봉제한 통형의 스커트로서 착용법은 론지 속에 들어가 뒤허리에 원단을 꼭 맞게 붙이고 남은 천을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왼쪽 겨드랑이로 가져가 위에서 띠로 묶은 뒤 발뒤축까지 드리우는 사롱형식이다. 색상은 이전에는 주로 단색이었으나 현대에는 핑크나 꽃무늬 등 화려한 프린트 무늬를 주로 착용하며, 기하학적 문양이 많다.

얼핏 보기에 통치마같은 이 옷은 일반 사람들이 평시에 입는 옷이기도 하고 직장인들의 근무복이기도 하며 외교행사 때나 국가적 기념식 때 국가원수나 외교관들이 착용하는 의례복이기도 하다.²¹⁾

엔지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블라우스로서, 길이

는 허리까지 오며 칼라는 없고 소매는 타이트한 긴 소매이다. 몸관 중심에서 상하로 하나씩 새로 드리운 천에 세 개의 버튼이 루프로 잠겨진다. 엔지의 소재로는 비치는 나일론, 레이스류가 주로 사용되며 색상은 보통 살색류이다.

장신구로서 남성은 가운바운(Gaung-baung)과 터번을 쓰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머리에 손수건 모양의 천을 둘러 맨다. 여성은 오른쪽으로 돌려 밑으로 내린 머리에 난꽃이나 자스민 꽃을 꽂기도 한다.

4) 인도네시아

다도국으로서 섬마다 다른 민족적 요소와 의복, 염직예술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는 기후조건과 바틱²²⁾기술에 의해 예전부터 고급 면직물 생산으로 유명하였다.

인도네시아 여성의 대표적인 민속복식은 판장(Pandjang)과 가바야(Kabaja : 바쥬 Badju라고도 함)로 구성되어 있다.

가바야는 긴 소매의 면 블라우스로서 앞뒤 몸관에 2개씩 다아트가 있고 가슴에는 가슴발이가 달려 있다. 최근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가바야의 소재는 레이스와 나일론이다. 이 위에는 슐렌당(Selendang)이라는 쇼울과 비슷한 어깨걸이를 걸치는데, 이것은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에 걸쳐 장식적 효과를 준다. 하의로 입는 판장은 바틱 염색을 한 목면 한 장인데, 착용법은 허리에 감아서 남은 여분을 정연하게 주름을 잡은 뒤 스타젠이라는 긴 띠로 고정한다. 〈그림 6〉은 사롱을 입고 허리에는 스타젠을 두른 전통 민속춤을 추는 무희의 사진이다.

남자는 상의로는 차이니즈 형태의 칼라가 달려 있는 헝길이의 셔츠를 입고, 하의로는 한복마지와

20) 황춘섭, 民俗衣裳 (서울 : 수학사, 1993), p.69.

21) 신봉길, 시간이 멈춘 땅 미얀마 (서울 : 도서출판 한나래, 1991), p.50.

22) 회화의 기술적인 프린팅 작업이며 가장 원시적인 dropping-method로 시작된 것이다. batik에서 tik는 nitik의 합성어이며 tritik은 방울을 옷감 위에 적절히 연결시킨다는 의미이며, nitik은 파상 무늬를 그릴 것을 뜻한다. 섬세한 손작업이 필요한 예술로 끝 마무리까지 반년이나 걸리는 작품도 있다.

(출처 : 동남아시아 지역학 개론, 동남아시아 연구소 편,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2, p.207)



〈그림 6〉 인도네시아, 사롱을 입고 스카겐을 두른 무희
(大韓航空, KAL WORLD TOUR(KOREAN AIR))

비슷한 넓고 풍성한 형태의 바지를 입으며 그 위에 사롱을 착용한다. 머리에는 카인카파라(Kainkapala) 또는 카파라카인(Kaparakain)이라는 천을 띠처럼 둘러쓰고 있다.

복식의 색상은 다갈색 계통이 많고 대부분의 민속의상은 바틱을 한 면직물로서 연잎, 식물, 꽃 등²³⁾의 문양이 많이 보인다. 바틱은 인도네시아 특산품으로서 납방염(wax print dyeing)으로 염색한 직물을 말하는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현대에는 서구화된 양복을 입고 머리에는 코피아(copia)라고 하는 흑색의 차양이 없는 모자를 쓰기도 한다.

5) 말레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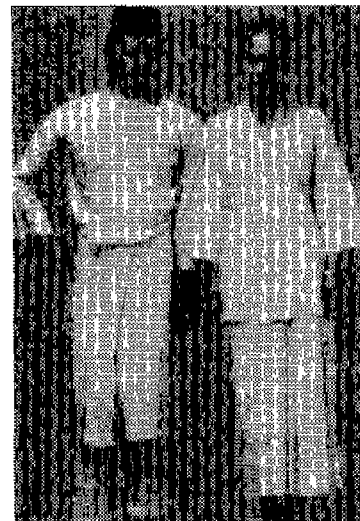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역시 중국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복합민족인 탓에 그 민족 고유의 민속의상이 적으며 주로 중국복이 많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풍의 사롱, 가바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복식의 양식을 보면 사롱은 한 장의 목면을 원통형으로 봉제한 것으로 입을 때는 통 안에 들어

가 오른쪽 옆을 딱 맞게 한 뒤 남은 부분을 왼쪽 옆선에서 주름을 잡아 고정한다. 상의인 가바야는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바쥬라고도 불리는데, 칼라 없는 라운드 네크라인에 13cm정도 슬릿을 주고 버튼과 루프로 여민 후 뒤집어서 입는다. 〈그림 7〉에서 보듯이 풍성한 오버블라우스풍으로 원단은 사롱과 같은 것을 이용하며 실크나 레이스도 이용한다.

사롱과 가바야 외에 말레이시아 여성들이 입는 또 하나의 정장 의복으로 조홀 스타일(Johore style)이 있다. 이것은 신부의장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검정, 남회청색, 녹색, 오렌지, 올리브, 흑자색 등의 색바탕에 금은사로 무늬를 겹쳐놓아 만들어 낸 격조높은 것이다.

남성의 민속의상은 소매가 넓고 스탠드칼라가 달린 바쥬 마알라(Baju Malaya)와 파자마풍의 바지로 구성된다. 이 바지는 백색 또는 위와 같은 색상의 옷을 착용하는데, 그 위에 사롱을 가슴 위까지 올려 둘둘 감는다. 문양은 수직, 수평, 사선, 지그재그 등으로 서로 엇갈리는 모티브를 사용하



〈그림 7〉 말레이시아 여성의 가바야와 사롱
남성의 바쥬 마알라와 바지 그리고 사롱
(민속의상)

23) 허미순, “동남아시아의 수직물에 관한 연구”, 성심여대 생활과학 연구논집, 제12권, 제1호 (1992. 12), p.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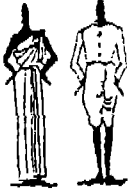



며 디자인은 대단히 밀도있고 넓게 퍼져 있다.²⁴⁾

발에는 차팔(Chapal)이라는 샌들의 일종인 신발을 신고, 머리에는 송콕(Songkok)을 쓰는데 이것은 검정 빌로드로 되어 있으며 터키모자와 비슷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권의 영

향을 받은 민속의상은 드레이퍼리형과 요의형의 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복식양식은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환경과 민족성과 관련되어 짐을 알 수 있다. 각 나라의 민속의상을 정리하면 <도표 1>과 같다.

<표 1> 동남아시아 국가의 민속의상의 명칭 및 형태

구명 구분	베트남	태 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비 고
스 타 일	상의 : 아오자이 하의 : 쿠완 	상의 : 사바이 하의 : 사롱형의 과농, 파 춘가벤 	상의 : 엔지 하의 : 사롱형의 론지 	상의 : 가바야 하의 : 사롱, 판장 	상의 : 블라우스 하의 : 바지위에 사롱을 걸쳐 입 음. 	인도와 중국의 영향
색 채	흰색	화려한 금박문양	살색, 핑크, 다채로운 색	다갈색 계통	오렌지, 흰색, 목단색 등	흰색 위주의 화 려한 색상과 문 양
문 양	무지가 많음	가로줄 무늬	화려한 문양이 프린트	바틱	바틱	수공예에 의한 자연무늬와 기 하학 무늬
장 신 구	논 (삿갓형 모자)	맥고모자	머리에 손수건 을 둘러 씌	코피아, 카인카파라	송콕	기후의 영향으 로 대나무가 주 소재로 이용됨
소 재	면	면	나일론, 레이스류	목면	목면	기후를 고려하 여 흡습성과 통 기성이 좋은 면 을 주로 이용

IV. 현대복식에 나타난 동남아시아 민속복식

‘민속풍’은 1989년 브레미에르 비봉에서 패션테
마로 등장한 이래 1990년대의 패션을 주도하고 있

다. 특히 1993년 이후 세계적인 컬렉션에서 발표
되어지는 에스닉풍의 패션은 아시아 지역으로 관
심을 모으고 있고, 그 중 동남아시아 지역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개발
도상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패션의 흐름도 이들

24) 허미순, op. cit, p.53.

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같은 아시안 에스닉 패션의 유행은 세계적인 추세로 유럽, 뉴욕, 도쿄에 이르기까지 각지에서 이루어진 컬렉션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도차이나 지역에 대한 관심은 대단한 것으로 베트남의 민속복식인 아오자이, 쿠완, 논을 여러 디자이너에 의해서 응용되어졌다.

1994년 봄·여름을 위한 컬렉션에서 뉴욕(New York)의 톱 디자이너 랄프 로랑(Ralph Lauren)은 인도차이나의 사롱과 드로우스트링(draw string) 팬츠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들을 발표했다. <그림 8>은 베트남풍 모자 논과 아오자이를 조화시킨 작품으로 그는 이 컬렉션에서 베트남풍의 아오자이와 쿠완, 논의 형태, 인도네시아의 사롱 형태를 도입한 일련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그의 작품은 베트남풍의 복식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의 민속복식의 요소들을 조합하여 사롱 에스닉 무드를 표현하고자 한 흔적이 보인다.

베트남 지역에 대한 관심은 일본의 디자이너 데코 수가이(Deco Sugai)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94 봄·여름 컬렉션에서 '동쪽 나라의 옷'(東の國の服)이라는 주제로 아시안 에스닉 패션을 표



<그림 8> FASHION NEWS, '94 S/ S

현하고 있는데, 그는 민속적 이미지의 문양, 염색 기법과 함께 동양의 민속복 스타일의 디자인을 보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베트남풍의 아오자이, 쿠완, 논, 샌들(Sandal)로 이루어진 디자인들로 <그림 9>는 그러한 작풍으로 전통 공예염색인 타이다이(Tie Dye)를 한 아오자이를 입고 논을 쓰고 있다.

아오자이풍은 1990년대 초 샤넬(Chanel)의 콜



<그림 9> FASHION NEWS, '94 S/ S



<그림 10> COLLEZIONI, '92~'92 A/ W

렉션에서도 등장되고 있는데, <그림 10>은 '91~'92 가을, 겨울 컬렉션에서 제시된 디자인으로 아오자이 스타일의 옆선을 따라 길게 슬릿이 들어간 상의와 쿠완 스타일의 팬츠에 샤넬 특유의 백색의 기초색에 브레이드 장식과 체인 벨벨트(Chain Belt)로 이루어진 디자인이다. 이 작품은 서양적인 샤넬풍의 디자인에 베트남의 스타일이 부분적으로 도입된 경우로 앳한 에스닉 패션이 세계적인 유행추세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아시아 에스닉 패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민속복으로 착용하는 사롱이 자주 이용된다. 사롱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등지에서 착용되는 대표적인 민속복으로 동양풍의 민속복이 서양복식에 도입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소재다. 사롱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착용되어지는데, 현대 패션에서도 허리에 두르거나 묶고 늘어뜨리는 등 갖가지 방법을 취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은 '90년 봄·여름 도쿄 컬렉션에서 일본의 디자이너 진 아베(Jin Abe)가 발표한 작품으로 동남아시아풍의 색상에 단자락에 금사의 띠를 두른 길이가 긴 사롱 스타일이다.

사롱은 유럽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사용된 흔적

도 보이는데, <그림 12>는 '91 봄·여름 볼렉션에서 루치아노 소프라니(Luciano Soprani)가 발표한 작품으로 베이지, 연회색 계통의 내추럴한 색상의 상의와 태국의 민속의상인 파춘가벤에서 영향을 받은 바지로 구성되어 있다. 태국의 파춘가벤은 한장의 천을 기교있게 감아서 구성하는 바지로서 풍성한 주름과 드레이퍼리의미를 보이는 태국 고유의 의상이다.

<그림 13>은 '94~'95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이



<그림 12> FASHION SHOW, '91 S/ S



<그림 11> 流行通信, 90. 2



<그림 13> COLLEZIONI DONNA, '94~'95 A/ W

태리의 에레우노(Erreuno)에서 발표한 것으로 신속성있는 니트를 소재로 한 랩트 스커트(Wrapped Skirt)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널리 입혀지는 사롱에서 응용된 것이다.

'94~'95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폼므테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가와구보 레이(Gawakubo Rei)는 사롱의 형태를 빌린 일련의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림 14>는 태국의 사롱인 파츄가벤에서 응용된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바느질 기법, 흰 옷같은 이미지의 색감으로 최근의 유행경향 중의 하나인 리사이클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에스닉이 같은 시기의 다른 유행경향과 맞물려 표현되어진 경우이다.

아오자이 스타일, 사롱 외에도 동남아시아의 민속복 스타일은 아시안 에스닉 패션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있다.



<그림 14> COLLECTIONS, '94~'95 A/ W

<그림 15>는 크리스찬 라크로와(Christian Lacroix)가 발표한 작품으로 스타일 면에서 인도네시아의 민속의상과 매우 유사하다. 인도네시아 여인들은 하의로 판장, 상의로는 가바야를 걸친 다음 스렌당이라는 어깨걸이를 하는데, <그림 15>에 보이는 어깨걸이는 인도네시아의 스렌당에서 그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5> COLLEZIONI, N. 90, 2, 3

<그림 16>은 '95 봄·여름 컬렉션에서 폼므테 가르송이 발표한 것으로 몸에 거의 딱 맞는 웨이스트 길이의 블라우스와 통형의 롱 스커트는 미얀마의 민속의상인 엔지와 론지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같은 컬렉션에서 샤넬이 발표한 <그림 17>도 엔지와 론지의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처럼 동남아시아의 민속의상에서 이미지를 응용한 현대의상은 대체로 고전적 형태



<그림 16> COLLECTIONS, '95 S/ S



<그림 17> COLLECTIONS, '95 S/ S



<그림 18> FASHION LINE, '94~'95 A/ W

를 보이지만 샤넬이 발표한 것처럼 현대적 이미지로도 표현된다.

<그림 18>은 말레이시아의 민속의상인 바쥬 마알라, 파자마풍의 바지, 사롱을 둘러 입는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오즈벡(Ozbek)이 '94~'95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발표한 이 작품은 베스트와 바지, 벨벳을 소재로 한 웨이스트 길

이의 짧은 재킷 그리고 바지 앞의 램으로 감싼 스커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의 샤이닝 룩(Shinning Look)을 반영하듯이 모노톤의 광택있는 소재를 이용하였다.

서양패션에 나타난 민속복식은 주로 실루엣이나 디테일이 서양복식에 접목되어지는데, 때로는 민속복식 그 자체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9>는 '94~'95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콤플리체(Complice)가 발표한 것으로 태국의 전통 민속의상인 파농과 사바이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금사가 수놓여진 망사를 허리에서부터 어깨 위로 걸쳐넘겨 드레이프미를 보이며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는 태국의 부희들이 민속춤을 출 때 쓰는 모자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태국의 전통문화와 함께 그 민족의 정서까지도 함께 표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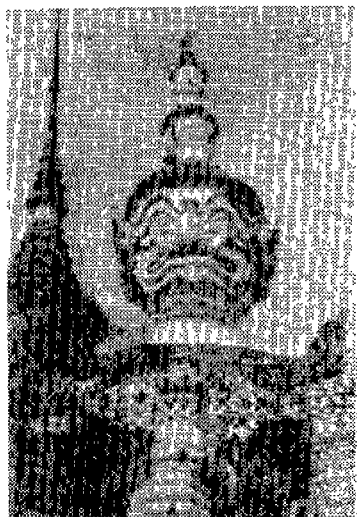
또한 아시안 에스틱 패션은 민족성과 예술성이 반영된 각 민족의 예술품과도 관련되어지는데, <그림 20>은 태국 사원의 뾰족한 지붕장식이 현대의 모자에 영향을 준 예이다. <그림 20>의 오른쪽에 보이는 태국 사원의 이 지붕장식은 태국의 전통 무희 의상에도 영향을 주어 모자나 어깨장식



<그림 19> COLLEZIONI DONNA, '94~'95 A/ W



〈그림 20〉 FASHION NEWS, '93 S/ S



〈그림 21〉 태국의 사원

그리고 손톱까지도 뾰족히 길게 늘어졌다. 오늘날 여성들이 손톱을 길게 늘이는 것도 태국의 고전무용에서 비롯²⁵⁾된 것이다. 이처럼 현대패션에는 의복 외에 건축물과 같은 예술품들도 아이디어를 주는 요소로 이용되는데, 모자나 신발 등 장신구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 나라 고유의 독특한

예술품의 형태나 소재, 색상에서 이미지를 따와 현대패션과 조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아시안 에스닉 패션에서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아시안 에스닉 패션은 현대복식에 접목되어지기도 하지만 여러 민족의 전통미가 복합적으로 표현된 교차 문화적인 스타일로도 등장된다.

〈그림 22〉는 94년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서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가 디자인한 것으로 여기에서도 그는 여러 국가의 민속의상에서 영향을 받은 스타일들을 믹스하여 아주 다양한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허리에 두른 것은 동남아풍의 사롱이고 얼굴과 목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인도풍, 그리고 발에는 군화형의 구두를 신고 있다. 이처럼 현대 패션에서 동남아시아 스타일은 한 국가의 이미지 외에 여러 국가의 전통미가 복합된 교차문화적인 스타일로도 표현된다. 이는 하나의 디자인에 여러 국가의 다양한 요소들 그리고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복합된 교차문화성이 보이는 전위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 패션의 특징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여러 민속



〈그림 22〉 COLLEZIONI, '94 S/ S

25) 金鍾玉, 모던실크로드 따라 2만리 (한국사진기자단, 1979), p.96.

적인 스타일들, 그리고 좀더 현대적인 스타일들을 복합시킨 믹스된 형태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착용자의 자유와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V. 결 론

9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된 앳안 에스닉 패션은 과거의 동양풍 패션에 대해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제까지 거의 세계인의 관심밖에 있었던 동남아시아 지역이 최근 정치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이 지역의 민속복식은 과거의 동양풍과는 다른 새로운 조형성으로 패션계를 주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민속복식은 스타일 면에서 트레이퍼리형의 요권의(腰卷衣)와 사롱 스타일이 대부분이고, 색채는 원색 위주의 화려한 색상과 문양이 많다. 문양은 수공예에 의한 자연 무늬와 기하학문양이 많고, 소재로는 천연소재를 사용하여 자연미를 살린 것이 많은데, 동남아시아 지역의 민속복식은 그 곳의 지리적인 요인, 문화적인 배경과 함께 그 민족의 정서를 표현해주는 매체로서 최근 서구패션에서 그 조형성을 인정받고 있다.

동남아시아 민속복식에 영향을 받은 아시안 에스닉 패션은 그 접목방법이 기본적으로 각국의 민속복식에서 나온 스타일, 색채, 문양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지거나 각 민족의 독특한 예술양식도 창의적인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특히 베트남풍의 아오자이와 쿠완, 논과 동남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의 민속복식인 사롱 스타일은 소수민족의 향수를 표현하는 주요한 모티브가 되고있고 이것은 복고주의, 자연주의라는 최근의 다른 유행경향과 맞물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아시안 에스닉 패션의 또 다른 특징은 멀티 에스닉(Multi Ethnic)이라는 새로운 경향이다.

이것은 시대, 문화, 성을 초월하여 동서양의 이

질적인 문화를 조화시키거나 서로 다른 민속복식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각국의 민속복식 요소들을 혼합하여 착용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일정한 코오디네이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고정관념의 틀을 깬 스타일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즉 다양한 시대와 공간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교차문화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아시안 에스닉 패션은 보다 변모된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서구 기계문명에 대해 식상하고 과거의 전통적인 편안함에 향수를 느끼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시안 에스닉 패션은 지속적인 유행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 황춘섭, 民俗衣裳, 서울 : 수학사, 1993.
- 민속의상, 서울 : 라사라, 1992.
- 白英子 柳孝順, 서양복식 문화사, 서울 : 경춘사, 1989.
- 崔景順, 崔英玉, 李正玉, 西洋服飾史, 서울 : 형설출판사, 1990.
- 金鐘玉, 모던실크로드 따라 2만리, 한국사진기자단, 1979.
- 정현숙 역, 20세기 패션, 서울 : 경춘사, 1992.
- 정승일 · 박태화 · 임영대 공저, ASIA, 서울 : 교학연구사, 1994.
- 주명희, “야수주의(Fauvism)의 영향을 받은 현대의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0. 12
- 장순찬, “Art Nouveau Fashion,”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허미순, “동남아시아의 수직물에 관한 연구”, 성심여대 생활과학 연구논집, 제12권 제1호, 1992, 12.
- 정연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민속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4호, 1993.
- 조규화 박혜원, “아르데코 패션의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15, No. 4, 1991.

- 조규화, “아르 데코 패션 1920년대의 파리를 중심으로”, 造形論叢, 第2輯, 國民大學校 환경디자인 研究所, 1982.
- KOREA TEXTILE, 季刊 한국텍스타일, 통권 제2호(여름호), 1993.
- 김민자, “한국 패션의 고유디자인에 대한 발전적 모색”, 산업디자인, 110, 1990, 6.
- UR과 디자인 / 개요, 월간 디자인, 독특한 문화 유산을 통한 문화디자인 개발, 월간 마켓팅, 1994, 2.
- “Oriental Look”, 패션 루데이, No. 45, (주) 패션정보사, 1994, 1.
- 월간 멋, 동아일보사, 서울, 1992, 3.
- 小川安郎, 世界民族服飾集成, 東京: 文化 出版局, 1991.
- FACT SHEET ON THAILAND-THAI FASHIONS... THEN AND NOW, Thailand: The Government Public Relations Avc, April 1986.
- National Dress for Women-Initiated by H. M. Queen Sirikit, Thailand, Bangkok, 1994.
- 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A HISTORY OF FASHION, London: Orbis, 1922.
- FASHION NEWS '93 S /S, '94 S /S
- FASHION SHOW '91 S /S
- FASHION LINE '94~'95 A /W
- COLLEZIONI N. 22(91~92 A /W), N. 37 ('94 S /S)
- COLLEZIONI DONNA '94~'95 A /W
- 流行通信 No. 313(90. 2)
- COLLECTIONS, '94~'95 A /W, '95 S /S.

ABSTRACT

The Study of Asian Ethnic Fashion in Modern Fashion

—Focusing on Southeast Asia—

Gi-Young Kwon

Young-Sun Yoo

Recently Southeast Asia has developed, so the world concerns about these regions. Ethnic fashion in 90's is mostly the influence of these regions' folk costu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esthetic aspects of folk costume in Southeast Asia,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n modern fashion and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Asia fashion's adaption to modern fashion and to help the creation of fashion design.

First of all, the folk costume in Southeast Asia is classified drapery style and sarong style. These non-west clothings appeal to modern fashion as the oriental traditional beauty.

Ethnic fashion appeared in 1990's is attempted to be more complex and variable than the previous ethnic fashion.

Asian ethnic fashion influenced from folk costume of Southeast Asia is—wholly or partly—the style, color, motif from each country's folk costume. And each country's unique art became the motive of the creative design.

Specially, Aosai and Quan in Vietnam and sarong style in most Southeast Asia are important motives expressing minority's nostalgia.

These are expressed in variable ways. Which are harmonized with latest other fashion trend; retro style and naturalism. Layered look, hippie look, unfinished sewing technic and manual

technic are used one image matched the folk costume of Southeast Asia which is natural.

Another characteristic in Asian ethnic fashion is a multi-ethnic. This harmonizes the different culture between the Orient and the West beyond the age and culture, and combines each folk costume.

It is involved that the fashion can develop individual country's costumes mixed with her own unique characteristics and the fashion break

the traditional concept and disagree with a certain coordinate rule and it indicates that the fashion shows various style, mood, volume and room as well as space.

Like this recent Asian ethnic fashion comes to us in a strange favor.

The people who are tired of traditional western civilization's outcome will receive a great tastes from the Asian ethnic fashion.